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한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원

18세 미만 아동 연 40만원 지급 지역 자원 활용...기본 소득 확대 인구소멸 위기 대응 마중물 기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민에게 햇빛 연금을 지급중인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햇빛 아동 수당' 지원에 나섰다. 특히 지역의 고유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기본 소득을 확대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햇빛연금을 활용한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우량 군수와 김혁성 신안군 의회의장,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을 비

롯 학생,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햇빛아동수당은 지난해 10월 19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행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올해 3월에 8개소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반기별로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등 1년 40만원의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기념하는 특별프로그램으로 '내가 그리는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도 함께 열렸다. 신안군의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위기, 태양광발전, 해상풍력, 탄소중립 등을 키워드로 그린 총 85여 작품이 행사장에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안좌면과 지도읍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5번째로 임자도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5개 섬 1만500여명에 달해 현재 주민의 28%가 수령중이다. 신재생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완공된 99MW급 태양광발전사업(해솔라에너지)의 수익금 중 주민 참여에 따른 1/4분기 주민이익배당금을 임자도 주민 3,147명에 분기별로 1인당 30만~10만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앞으로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태양광 발전 사업이 준공되면 신안군 전체 주민의 45%가 햇빛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8.2GW도 조기에 추진해 주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우량 군수는 "우리 지역의 전체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햇빛아동수당 지급을 실현하게 해준 협동조합 연합회와 신안군 의회,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햇빛아동수당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완도 '이순신 기념관' 개관...역사·문화 관광지 도약

조명연합수군 활동 등 전시

완도군이 최근 '이순신 기념관' 개관식을 가졌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개관식은 기념관 앞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내외빈과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금 상정 농악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커팅식, 기념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순신 기념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수군 본영이 설치됐던 역사적인 공간인 묘당도의 가치를 알리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 공원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이순신 장군의 완도와 고금도에서의 활동을 선양하고자 건립됐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투입됐으며, 1층에는 기획 전시관, 영상관, 사무실, 체험 공간이, 2층에는 상설 전시관이 마련됐다. 기획 전시관에는 개관 기념으로 1598년 위태로운 조선을 구하기 위해 결성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 수군에 대한 활동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다. 영상관에서는 '이순신, 나라를 구한 불패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고금도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고금도 해전과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전투 장면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상설 전시관은 이순신 장군의 활동상을 재조명하는 '이순신 관'으로 고금도를 중심으로 전시 내용을 구성·연출해 타지역 이순신 기념관과의 차별화를 뒀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기념관이 역사·문화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 공원 조성고 고금역사 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이 완도가 해양 역사·문화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 공원 조성' 사업과 더불어 총 190억 원을 투입해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 수군이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고금 덕동리 일원에 '고금역사 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도=최규옥 기자

진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한다

8억 투입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진도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은 동네단위에서 우수제품 생산·소비가 가능한 유통채널을 구축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도군은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알뜰장터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비 6억원을 포함한 8억4,000만원의 사업

비를 확보해 ▲지역브랜드 상품화 ▲소상공인 상품 공급망 구축 ▲택배사 연계한 유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 판매처 확대 ▲인터넷 판매 역량 강화 교육 등 차별화된 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유통·판매 체계의 혁신을 통해 우수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으로 농어가와 소상공인 상생할 수 있게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장보고 수산물축제 '223m 해조류 김밥' 눈길

해조류가 특산물인 완도군에서 223m 길이의 해조류 김밥이 등장했다. <사진>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날 '2023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주 무대에서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223m 해조류 김밥 만들기' 행사가 진행됐다. 223m는 2023년도에서 '0'을 뺀 숫자다.

완도 주민과 관광객들은 김밥 속 재료에 완도 특산물인 각종 해조류를 넣어 완도에 서만 맛볼 수 있는 김밥을 만들고 나눠 먹었다. 223m나 되는 김밥이 완성돼 들어 올려졌을 때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환호성이 터져기도 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무안, 보험료 최대 100% 지원

무안군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7일 무안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때 복구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에게 보험료의 70%부터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물 등에 손해가 발생

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상담 및 가입은 7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에서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이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김산 군수는 "최근 대규모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무안새마을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협의회가 평양나들목 주변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화 활동은 무안읍 새마을협의회 40여 명과 함께 도로변 주변에 버려진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해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백계복 새마을협의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많은 분이 활동에 참여해 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무안 만들기 위해 새마을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숙아 무안읍장은 "깨끗한 무안읍을 만들기 위한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발전과 새마을협의회가 지역 사회에 공헌해 달라"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해남군민의 날' 기념행사 성황

제50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가 최근 해남우슬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옥외에서 열린 기념행사로, 50주년 의미를 더해 해남발전의 비전을 선포하고 군민 화합의 한마당으로 군민과 향우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로 펼쳐졌다.

군민의 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14개 읍·면에서 선발된 선수단의 체육행사와 민속행사가 열려 우슬벌을 달렸다. 명현관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민선7기 역대 최대의 군정성과를 이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살맛나는 해남발전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부흥동 지사협, 독거 어르신 반려식물 전달

목포시 부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독거 어르신 세대에 다육식물을 전달했다. 김선화 위원(도시숲 대표)은 "평소 화초를 좋아하는 친정부모님을 생각하며 준비했다"며 "어르신들이 꽃을 보고 행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흥동 지사협이 추진하는 '초록 아 잘 자니? 반려식물 지원사업'은

외롭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복지 통장들이 반려식물인 다육화분을 가정방문해 전달하고 안부도 살피는 봉사활동이다. 윤선숙 부흥동장은 7일 "반려식물을 후원해 준 위원과 초록생활 교실을 마련해 준 힐링공방 이지영 원에 활동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